◤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4월 16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1장 44-47절　　설교제목 : “부정하고 정한 것”

1-7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제사가 두 번 반복됩니다. 1:1-6:7까지 다섯 가지 제사의 목적에 따라 기록되었고, 6:8-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고, 9장은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옵니다.(**레10:1-2**)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레16:12)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에 번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굳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의 불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상식과 이성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은 상식과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상식과 합리성이 아닌 말씀입니다. 영적 제사장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상2:30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대제사장의 장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 받습니다. 나답은 아론의 장자입니다. 나답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레위기 10장에 배치했는지 구조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지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도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서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임무를 주십니다.(**레10:10-11**) 그 임무는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 이후에 수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구조가 로마서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배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레위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하면 1-10장이 전반부, 11-27장이 후반부입니다. 1-10장은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즉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11-27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즉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 즉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롬12:2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기 위한 전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자세하게 나눕니다. 첫째, 2절에 보시면, 네 발 짐승과 관련해서, 9절은 어류에 관련해서, 13절은 조류에 관련해서, 20절은 곤충 가운데 음식으로서의 정과 부정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과 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과 부정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이고, 정하다고 하면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과 정함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결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과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적용된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가령 레위기에서는 절대로 개별도축을 못합니다.(**레17:3-4**) 반드시 짐승은 성막에서 죽여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으로 진영 밖에서 절대로 개별도축이 안됩니다. 반면 신명기에서는 개별도축이 가능합니다.(**신12:15**) 레위기에서는 금지된 개별도축이 신명기서에는 허락됩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레위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가나안에서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절대적 진리일까요 상대적 진리일까요? 이 음식규례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레위기 11-15장까지 다루는 짐승이 36가지가 나오는데, 그 짐승 가운데 광야에만 있는 짐승이 있고, 가나안에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또는 애굽에만 있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7:18-19**)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딤전4:4**)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으나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고전10:23-24**) 결론적으로 부정과 정함의 규례가 갖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레11:44-45)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시공간과 사람을 초월한 절대 진리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고전10:31) 구별된 삶의 기준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모두 부정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정결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1)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0:1-2**)
2)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지, 상대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레17:3-4/신12:15**)
3)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막7:18-19/딤전4:4/고전10:23-24**)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스스로 구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